"천 후보 해명, 불법 선거운동 자백"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사전선거운동 · 자금 의혹 정면 공세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사진)가 천호성 후보를 향해 사전선거운동 및 자금 의혹과 관련한 해명이 "오히려 불법 선거운동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선거 막판 양측 공방은 사실 검증과 정치적 공세가 맞물리며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28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교수 측 해명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와 재판, 재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사전준비방' 논란에 대해서도 "선거 준비를 위한 비공개 조직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실질적인 선거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전선거운동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직 교사로 알려진 오모 씨가 선거 조직 구성, 홍보 전략, 여론조사 대응, SNS 관리 등 캠프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의혹을 키웠다. 이 후보 측은 관련 녹취와 자료를 근거로 "사실상 핵심 실무를 맡았다면 단순 자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조직도와 집행체계를 특정 인물에게 맡긴다"는 발언과 함께 "1년 반 이상 함께 일했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들은 것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기억난다"는 취지의 답변이 포함됐다고 이 후보 측은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선거자금의 출처와 유입 경로, 사용처, 회계 처리 여부는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돈과 조직이 불투명하게 움직이면 선거의 공정성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후보 측이 "현직 공무원 김모 씨는 캠프와 무관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며 "홍보 전략회의에 해당 인물이 참석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남호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와 재판, 재선거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전북교육과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중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는 책임 있는 설명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교육은 투명성과 신뢰 위에 서야 한다"며 "도민들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교육의 안정성과 아이들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남호 후보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천 후보의 해명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 측은 "입금 내역, 자금 출처, 변호사 선임 경위 등 핵심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말뿐인 부인은 해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임계 시점과 사건 경위, 자금 흐름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비공식 조직 운영 의혹과 핵심 회의 참석 정황이 제기된 만큼 단순 자문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막판 공방은 정책 경쟁을 넘어 사전선거운동 의혹, 자금 흐름, 조직 운영의 적법성 논쟁으로 확산되며 유권자 판단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취재반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8일 완주군 봉서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산 적극 지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완주 봉서초 방문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 학폭 심의 '0건' 성과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현장 안착과 확산 지원에 나섰다.

유 권한대행은 28일 완주군 봉서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봉서초는 어울림 학생동아리 운영과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또래 상담가 활동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특히 학생 간 갈등 발생 시 피·가해학생 관계 조정을 통한 학교장 자체 해결을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 건수 '0건'을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학생 간 갈등 예방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전북교육청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학교와 교육청 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예방 중심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관계회복 숙려제를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했다"며 "교사 대상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연수와 학교 관리자 대상 조정전문가 양성 연수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봉서초의 우수사례가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돼 존중과 배려, 책임이 살아있는 긍정적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120시간 총력 유세 돌입"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네거티브 뚫을 것"

전직 민주진보 교육감들, 천 후보 공식 지지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선거 막판 총력 유세에 돌입하는 한편, 전직 민주진보 교육감 6인의 공개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선거 막판 여론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천 후보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북 곳곳을 도민과 함께 뛰는 120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선거 막판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북교육이 과거의 부패와 비리로 돌아갈 것인지, 아이 중심의 미래교육과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남은 기간 동안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도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앞으로 거리, 전통시장, 학교 주변 등을 직접 찾아 도민과 만나며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함께 뛰며 전북교육의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전북교육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투표"라며 "본투표 참여가 어려운 도민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감, 현장을 바꾸는 교육감, 청렴하고 실력 있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네거티브를 넘어 희망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환호성 지르는 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교육계에서는 전직 민주진보 교육감 6인이 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지지 선언에는 곽노현, 김상곤, 민병희, 장석웅, 장휘국, 조희연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천 후보를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준비된 적임자"이자 "민주진보 교육의 적통"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지 선언문은 "지금 우리 교육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전환기 앞에 서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나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교육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검증된 실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천 후보가 공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맞춤형 책임교육' 설계자라고 평가했다. 출생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돌봄 확대, 교육기본수당 등 정책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곳곳을 도민과 함께 뛰는 120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선거 막판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공동체 회복과 관련해서는 "갈등을 사법적 잣대로만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해결과 학교 자치 회복을 강조한 점이 현장 친화적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교육 안전망 구축 공약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지역과 교육을 연계한 미래 비전으로 새만금 글로벌 교육발전특구 구상과 지역 맞춤형 특성화고 육성, 소규모 학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이를 "지역 소멸 대응과 청년 정주 기반을 함께 고민한 현실적 교육 전략"이라고 밝혔다.

지지 선언문은 "천호성 후보는 교육 현장과 대학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실천을 이어온 교육학자이자 현장 전문가"라며 "투명한 교육행정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준비된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혁신교육의 성과를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직 교육감들도 천 후보의 교육 혁신 여정에 함께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지 선언과 함께 천 후보의 총력 유세 전략이 맞물리면서 전북교육감 선거는 정책 경쟁과 진영 대결이 동시에 격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올해 원어민 화상영어 토킹 클래스 2기 모집

전북교육청, 초3~고3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내달 4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 원어민 화상영어 토킹 클래스' 2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기 수업은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9주간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6월 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후 8시까지이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수업은 원어민 강사와 학생 3명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 2회·회당 30분씩 운영된다.

원어민 화상영어 토킹 클래스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 학습 흥미 제고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는 모두 4기로 나눠 기수별 9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3기 모집은 오는 8월 4일부터 18일까지, 4기 모집은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각각 8월 24일부터 10월 22일,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오상근 기자

마음이지(EASY) 검사 활성화 선도

전북교육청, 교육부 개발 시스템 선도교육청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개발한 학생 마음건강 진단 시스템인 '마음이지(EASY) 검사 활성화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마음이지 검사는 정서와 불안, 대인관계 등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선별검사다. 교사가 학생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검사 문항이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중·고등학생은 학생 본인에게 URL 형태로 전달되며 응답과 동시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것과 달리 마음이지 검사는 필요할 때마다 상시 실시할 수 있어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6월 공모를 통해 마음이지 검사 중점학교 50개교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현장지원단 운영과 전문상담교사, 위(Wee)센터 상담 인력 연수 등을 통해 검사 활용도를 높여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운동장 · 수목 관리 전 학교 확대… 예산 절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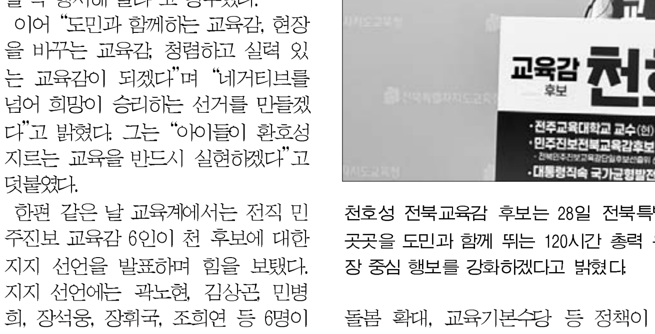
정읍학교업무지원센터서 추진… 학교 현장서 큰 호응 얻어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학교 운동장 관리 및 수목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신청 학교 중심의 선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북지역 최초의 보편적 지원 사례다.

센터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학교 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새롭게 설계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운동장 잡초 제거와 평탄화 작업, 수목 병해충 진단·방제 등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자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전문업체 위탁이나 장비 확보가 쉽지 않아 관련 업무가 교직원에게 집중되면서 교육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읍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 관리·수목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이에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학교별 개별 용역 방식 대신 관내 학교 수요를 통합해 전문업체와 일괄 계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용역 단가를 낮추고 절감된 예산으로 지원 대상을 전체 학교로 확대했다.

운동장 관리 사업은 기존 약 15개 학교에 한정됐던 지원을 공·사립 전체 학교로 확대해 연 2회(5월·8월) 잡초 제거와 평탄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 운영을 통해 개별 학교 처리 방식보다 비용을 39%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별도 장비 대여나 용역 계약을 추진하지 않아도 돼 행정업무 부담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수목 관리 사업 역시 관내 전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수목 건강 상태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5월에는 긴급 방제가 필요한 학교를 집중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진단 비용은 약 75%, 방제 비용은 최대 40%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용훈 정읍교육장은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유 · 초 · 중 · 고 교(원)감 연찬회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20명을 대상으로 '2026. 장수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2026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인 책임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28일 오후, 참석자들은 여수고등학교 양홍석 역사 교사의 해설과 안내에 따라 깊이 있는 역사 기행을 진행했다.

행사 이튿날인 29일에는 여수예술랜드에서 미디어아트 관람 및 시설 안전점검 체험을 실시하고, 연찬회 일정을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는 차담회를 끝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